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한 사랑의 인술

제34회 아산상 ① | 아산상 박세업 의사



제34회 아산상을 수상한 박세업 의사가 모로코 결핵환자에게 약을 나누어주고 있다. (왼쪽 두번째)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싶었던 박세업 의사는 의사가 된 후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몽골, 아제르바이잔 등 해외에서 의료봉사를 펼치며 힘들고 아픈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다. 박세업 의사가 본격적으로 해외 의료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난민촌에서 한 청년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난민촌의 한 청년이 저에게 오더니 왜 이제 왔냐고, 이제 오면 어떻게 하냐고 절규하더군요. 전쟁이 났을 때는 오지도 않다가 이렇게 난민이 된 후에 와서 약 하나 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같이 있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으로 고통 받는 주민 치료

박세업 의사는 단기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하면서 현지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깨닫고 40세가 되던 2002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운영하고 있던 개인병원을 정리했다. 이듬해인 2003년 호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문화인류학, NGO학 등을 공부하며 내실을 다졌다.

2005년 공부를 마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았다. 그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시설과 의사가 없어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임 없이 가족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다.

2005년부터 수도 카불의 쿠퍼국제병원에서 일반외과 과장, 교육 부장으로 환자 치료와 기술 전수에 힘썼다. 2007년에는 수도 카불 인근 바그람 미군기지 내 한국병원의 병원장을 맡아 현지 의료진 교육과 양성은 물론 의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여자 환자를 치료해서 집으로 보내면 남편에게 맞아 다시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결국 가정 폭력이 해결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 병원 밖 세상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들이 사는 현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보건학을 공부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밤낮으로 치료와 수술에 몰두하던 박세업 의사는 병원밖에서 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열심히 수술을 해도 살릴 수 있는 환자는 한정적이었다. 외과의사로서 수술도 중요하지만, 저개발국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현장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 더 넓은 의미의 의료봉사활동을 고민하던 중 ‘보건’이 이러한 고민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50세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보건학 공부를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이 완전히 보장된 상태’라고 정의해요. 바로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이 필요합니다. 나이 50세라고 하면 새로운 걸 배우기 늦은 나이가 아닌가 하지만 여전히 배움이 필요한 시기죠.”

2012년 석사과정을 마치고 나니 아프가니스탄은 외국인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때 북아프리카가 눈에 들어왔다. 모로코, 모리타니아, 말리, 부르키나파소, 차드 등 가난한 나라가 많이 밀집해 있기도 하고 한국 의료봉사단과 NGO도 진출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모로코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활동 반경을 넓히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모로코는 결핵 발병률이 매우 높아요. 빈부격차가 심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죠. 더구나 유럽으로 건너가기 위한 길목이라 밀입국자들이 많은데 한 집에 서너 가구가 함께 생활할 정도로 주거 환경 역시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 질병이 많아 보건사업이 더욱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해법을 찾다

박세업 의사는 2012년 국제보건의료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케어’의 북아프리카 본부장을 맡아 모로코에서 지금까지 2만 7천여 명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등 결핵 퇴치에 힘쓰고 있다.

“결핵은 약을 잘 먹으면 나올 수 있는 병인데, 약을 참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한편으론 왜 안 먹을까 궁금했어요. 찬찬히 살펴보니 교육을 받지 못해서 약을 챙겨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슬람적인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다가가



아프가니스탄 환자와 함께한 박세업 의사.



모로코 현지 아이들과 웃고 있는 박세업 의사.



박세업 의사가 모로코 주민들을 진료하고 있다.

가려고 노력하다가 스마트 약상자를 도입하게 됐어요. 국내 헬스케어 업체와 함께 약의 무게를 감지해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복용하지 않았을 경우 알람 소리와 함께 뚜껑을 열어 약을 먹도록 유도하는 약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전담 요원이 전화나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박세업 의사의 노력으로 모로코의 결핵 완치율은 70%에서 90%까지 높아졌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환자관리를 위한 결핵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결핵 관련 의료인과 지역주민 교육, 결핵약 복용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보건요원 양성 등 현지 보건체계가 개선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한 모로코 결핵 퇴치사업이 효과를 보이자 2019년부터는 모로코에 인접한 모리타니아로 관심을 돌렸다. 6주 간격으로 모리타니아를 방문해 결핵 퇴치는 물론 영양 지원, 의료 지원 등 다각도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는 사람

“해외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은 많으세요.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저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지인들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부족한 걸 돕고자 해요. 의료는 물론 교육과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의료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생존 이후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방

법을 고민하는 거죠.”

박세업 의사는 결핵 퇴치사업 외에도 학교 보건, 모성 보건, 교육 및 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언어 수업과 미용, 바느질 등을 가르치고 야학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박세업 의사는 의사로든 청소부로든 본인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한다. 모로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현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20년 8월 작은 아들의 한국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현지인들의 곁을 지켰다. 박세업 의사는 현지인과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위해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독학으로 공부했고, 결핵환자 치료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로코 의사협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 2022년 3월 모로코 의사면허도 취득했다.

박세업 의사는 외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모로코 정부가 국민들의 보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목표이자 꿈입니다.”라고 말하는 박세업 의사는 현지 공동체에 들어가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생활하며 돕고 있다.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북아프리카의 의료 시스템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다. 🌟 글 권주희 작가